

(732)

# 조선

주제 106  
(2017)

7







## 차례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	1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올려퍼진 다발적, 연발적위성·····	4
포전길에 어킨 불멸의 자욱·····	6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여·····	8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위하여·····	10
△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자력자강의 참조물 - 원산군민발전소·····	12
질 좋은 비단천들이 생산된다·····	14
설비현대화에 힘을 넣어·····	16





새형의 로케트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5월

#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사변

주체106(2017)년 5월 14일 조선의 로케트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형의 로케트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	16
사회주의로병이 응축된 혁명거기.....	18
칠단돌피전의 기수.....	26
오늘도 그날에 사는 녀성중군기자.....	28
관록있는 3부자요술배우.....	30
대동강의 새 풍치.....	32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34
녀자축구국제심판원.....	36
장애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38
천연기념물	
성균관은행나무.....	40
소식.....	41





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km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결론하시자 천지를 뒤흔들며 솟구친 로케트의 동음마냥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발사장을 진감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예위싸고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어 눈물의 바다를 이룬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후손만대에 물려줄 고귀한 국보인

《주체란》에는 령도자는 과학자들을 믿고 과학자들은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일심단결의 사상, 혼연일체의 녀이 높뛰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특별 감사를 주시였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은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으로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글 김래현



주체조선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다시한번 세계에 떨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국가의 관심과 온 나라 인민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평양체류기간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였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미제와의 대결을 끝장내고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핵공격수단,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직접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창조적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로케트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형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를 주체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완성할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 짧은 기간에 훌륭한 무기체계를 만들어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시험발사를 하루 앞두고 로케트총조립전투현장을 찾으시어 발사준비과정을 직접 지도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뜨겁게 고무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현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의 완벽한 무기체계, 《주체란》이 탄생

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발사당일 이른새벽 또다시 로케트 시험발사장에 나오시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계획을 료해하시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위력이 강한 대형중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의 전술기술적제원과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령에 따라 새벽 4시 58분 새형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이 발사되였다.

발사된 로케트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 111. 5km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참관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 106(2017)년 5월

##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올려퍼진 다발적, 연발적뢰성



은 나라가 신형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하며 크나큰 걱정과 환희로 세차게 뛴어번치고 있는 속에 조선에서는 지난 5월 부대실전배비를 앞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 나오시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이번 발사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지표들을 최종확증하고 각이한 전투환경속에서 적응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대들에 실전배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감시소를 차지하시고 발사명령을 내리시자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뜨리며 《북극성-2》형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향해 발사되였다.

발사된 탄도탄은 비상히 강화된 공화국의 준엄과 위상, 국력을 과시하며 5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승리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였다.

이번 발사를 통하여 리대식자행발사대차에서의 랭발사체계, 탄도탄의 능동구간비행시 유도 및 안정화체계, 계단분리특성, 대출력고체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특성들의 민음성과 정확성이 완전확증되였다.

또한 핵조종전투부의 분리후 중간구간조종과 말기유도구간에서의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원격측정자료에 의하여 재확증되었을뿐아니라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자료에 근거하여 자세조종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되였다.

이와 함께 탄도탄과 리대식자행발사대차를 비롯한 지상기재들을 실지전투환경속에서 그 적응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일군들과 함께 발사결과를 분석평가하시고 백점, 만점이라고, 흠잡을데 없이 완벽하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탄도탄의 명증성이 대단히 정확하다고, 《북극성-2》형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시면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무기체계의 부대실전배비를 승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탄도탄에 설치된 촬영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지구사진을 보시고 우리가 쏜 로켓에서 지구를 쭉 내려찍은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미처 정신차릴새없이 우리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핵무력강화에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올려퍼진 다발적, 연발적뢰성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는 주체조선의 불패의 군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글 김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포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65(1976)년 9월

## 포전길에 이 켜 불멸의 자욱

포전길이라면 지도에도 오르지 않는 길이다.  
드넓은 전야로부터 산간벽촌의 작은 폐기밭들의 포전길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많은 포전길들을 조선인민은 무심히 대하지 않는다.  
조용히 불리만 보아도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와 눈시울을 적시는 조선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으시고 새 조국건설을  
위한 해방(1945. 8. 15.)직후의 그날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주체 83(1994)년 7월 8일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 그날

까지 걸으신 포전길이 몇천몇만리인지 다는 모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한번 실컷 지어보았으면  
한이 없겠다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헤아려보시고 해방된 조국에서  
의 민주개혁도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여 밭갈이하는 농민  
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다.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인민들이 먹을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방의 대홍단벌의 감자밭  
포전길로부터 서해안의 연백벌 논두렁길과 두메산촌의 자그마한 포전



강서군 청산리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7(1958)년 10월

길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이 없이 온 나라 농장길을  
걸고 또 걸으시었다.  
그길에서 한 농장의 명예농장원이 되여주시고 몸소 저수지자리도  
잡아주시었으며 밭머리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농민들과 함께 농사방법  
도 의논해주시면서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  
에 맞으면서도 안전하고도 높은 수확을 낼수 있는 우월한 농법인 주체  
농법을 창시하시여 농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 83(1994)년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온천군 금당협동농장과 평양시 대성구역의 포전길들을 걸으시며 가물  
을 이겨내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심혈을 기울이시며 쉬임없이 걷고걸으신  
포전길, 농촌현지지도의 그 불멸의 자욱이 있어 협동벌마다에서는  
금나락이 설레이고 조선의 사회주의농촌들에서는 천지개혁의 새 력사  
가 펼쳐지게 되었던것이다.

글 김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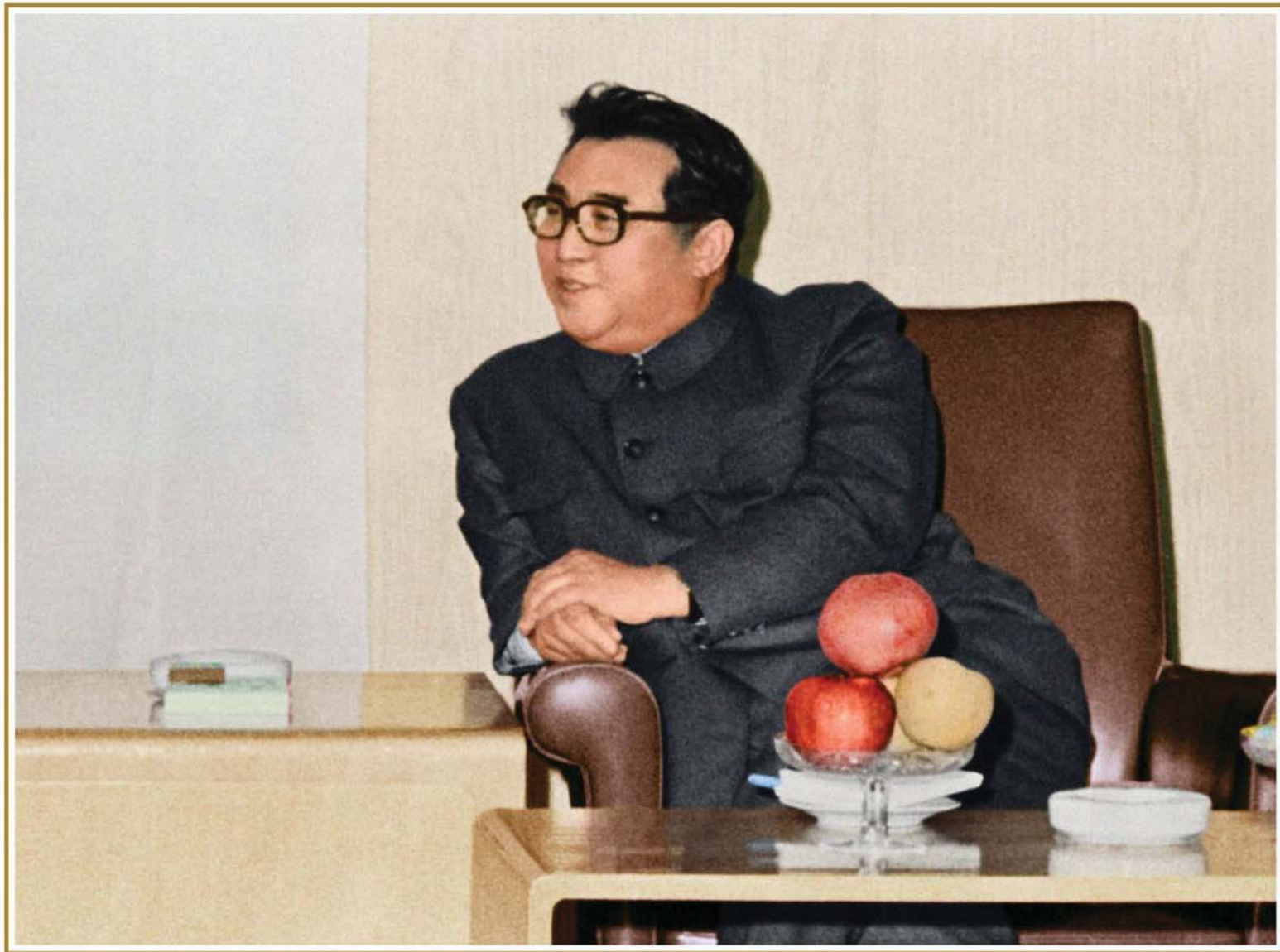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58(1969)년 10월



개천군 외서협동농장 여성뜨락또르운전수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62(1973)년 11월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1(1972)년 5월

#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여

지금으로부터 마흔다섯해전인 주체61(1972)년 7월 4일 조선의 삼천리강토가 통일의 열망으로 들끓었다.

조선인민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중대사변으로 기록된 역사의 그날은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온 겨레가 하나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승고한 민족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었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조선인민의 통일기운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례없이 높아졌다.

겨레의 통일념원과 그 절박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북남사이의 새로운 협상방침

을 제시하시였다.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람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이 협상방침은 내외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이 마련되였다.

한없이 넓은 도량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1(1972)년 5월 3일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주시고 민족분렬로 오래동안 헤어졌던 같은 동포끼리 만나니 대단히 반갑다고, 용감하게 우리를 찾아온 당신을 환영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다.

그리고 이미부터 구상하여 오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조항별로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며 지금 세계렬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사리정연하게 설명하시자 남측대표는 수상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참으로 지당하다고 하면서 이 3대원칙을 기초로 삼고 나가겠다고 하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천명한 조국통일3대원칙은 온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주체61(1972)년 7월 4일 력사적인 북남공동성명이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공식발표되였다.

북과 남이 처음으로 합의하고 그 리행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온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의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정웅



국도분단후 처음으로 북과 남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시험통화를 하였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조우호협회 각계 대표들의 모임이 진행되였다.



온 민족의 기대속에 주체61(1972)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에서 북남적십자회담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평양에서 주체62(1973)년 3월 북남조절위원회 제2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1월

#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의 벽란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교육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중등일반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기본임무에 대하여》 등 력사적인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새 세기 지식 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비범한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의 기본고리로 정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새 의무교육강령의 작성과 교육조건 및 환경의 개선을 비롯하여 중등일반교육과정을 구체적실정과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고 개선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의 손길에 따라 지난 세기 공업경제시대의 대학, 전문학교교육체계의 틀에 머물러있던 고등교육체제도 유능한 학술형인재들과 실천형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게 완비되였다.

중앙과 지방의 많은 대학들이 부문별, 지역별 종합대학들로 발전되고 전문학교들이 직업기술대학으로 되였으며 학제와 학부, 학과와 강좌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첨단학과들이 나오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이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고 일생동안 배울수 있도록 중요대학들의 원격교육체제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도록 하심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넓은 길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선군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구역 창천소학교와 경상유치원, 평양중등학원과 초등학교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많은 교육단위들과 과외교양기지들을 찾아주시였으며 주체102(2013)년 11월에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자신께서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시겠다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그 나날속에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사업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두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시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였던 3년전 12월의 찬바람부는 날도 있었고 아이들의 학습장, 가방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며 수많은 도안들까지 몸소 지도하여주신 천금같은 시간들도 있었다.

조선인민은 한없이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을 일떠세워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으며 온 나라가 학습열풍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광호



중앙과 지방의 많은 대학들이 부문별, 지역별 종합대학들로 발전되고 원격교육체제와 과학기술보급의 거점이 훌륭히 꾸려져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다그쳐지고있다.







만 리 마 선 구 자 대 회 를 향 하 여

# 자력자강의 창조물 - 원산군민발전소

지난해 조선의 중동부 강원도에서 또 하나의 대규모수력발전소가 조업하였다.

원산군민발전소로 불리우고있는 이 발전소는 강원도 법동군의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조선서해로 흐르는 조선에서 8번째로 긴 강인 립진강의 상류에언제를 쌓고 저수지의 물을 조선동해로 돌려 락차고를 조성함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류역변경식수력발전소이다.

언제가 위치하고있는 류역은 평년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1.2배나 높아 물자원이 풍부할뿐아니라 지반도 좋아 물의 류실을 막고 언제의 견고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명당자리이다.

하여 강원도안의 인민들은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발전소를 건설할 일념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산세 험하고 인적 없던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온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역척같이 펼쳐나 마식령산줄

기를 꿰치르는 수십km의 물길굴뚝기와 근 200만㎡의 언제쌓기, 수천m의 압력철관로공사를 완강하게 수행해나갔다.

그리고 발전기실건축 및 설비조립공사, 전력망계통공사, 100여세대의 발전소종업원들을 위한 살림집공사 등도 따라세워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완공하였다.

원산군민 1호, 2호발전소들이 완공됨으로써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과 주민생활용수문제, 공업 및 관개용수문제가 보다 원만히 해결되고 이 지역의 자연풍치도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었다.

지금 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도안의 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 강원도정신이 창조된 발전소에서 설비들에 대한 정상관리를 짜고들어 전력증산의 동음을 계속 높이 울려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최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만 리 마 선 구 자 대 회 를 향 하 여

# 질 좋은 비단천들이 생산된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비단생산방법을 확립하고 제품의 질제고와 가지수를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녕변견직공장은 조선의 이름있는 비단생산기지의 하나이다.  
 주체37(1948)년 8월에 창립되어 근 70년의 년륜을 새겨오는 공장은  
 지난 시기 다색단, 색동단을 비롯한 색깔곱고 문양고운 여러가지 비단  
 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왔다.  
 오늘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상품, 명제품들을 생산  
 하는것을 기업전략의 중요항목으로 내세우고 새 제품개발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비단생산방법을 확립하고 그에 의한 생산제품의  
 가지수를 늘여나가고있다.  
 하여 원단위소비기준을 1/5로 낮추면서도 질 좋은 비단을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방법으로 짠 비단은 빛갈이 우아하고 손맛이 부드러울뿐  
 아니라 구김이 없고 세탁성도 좋은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새로 개발한 룡승단도 봄, 가을 조선옷감으로 녀성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지난 시기 모본단, 자미사를 비롯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가지  
 비단만을 생산하던 공장에서 지금은 20여가지나 되는 질 좋은 비단천  
 을 생산하고있다.  
 녀변견직공장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는 새 제품  
 개발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김선경



여러가지 비단이불들도 생산하고있다.



# 여러 나라들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쿠바, 알제리, 인도네시아, 도이쉴란트를 비롯한 14개 나라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8종을 7개나라 어문으로 5 050부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비롯하여 출판된

로작들의 앞표지 옷부분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함을 정중히 모시였으며 앞표지들에는 로작출판이 가지는 의의를 담은 서문도 주었다.

여러 나라 출판사들에서는 로작들을 출판하고 그 발행식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출판관계자들과 조선과의 친선 및 사회단체, 주체사상연구소조 인사들이 참가한 발행식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김정일각하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고스란히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

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조선을 강력한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 미싸일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다고 격찬하였다.

글 김옥경



## 만 리 마 선 구 자 대 회 를 향 하 여

# 설비현대화에 힘을 넣어



공장에서는 여러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을 갱신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생산하고있다.



평양제약공장은 주체35(1946)년 5월에 창설되어 지난 수십년간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설비들을 갱신하는데 힘을 넣어 나라의 제약공업발전에 이바지하여왔다.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받들고 의약품생산의 현대화에서 많은 전진을 가져오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건축면적이 수천여㎡에 달하는 생산건물을 개건함으로써 생산환경의 무진화, 무균화를 실현하였다.

공장에서는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협력하여 신약직장과 고려약직장의 여러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을 새로 설계제작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설계제작을 위해서만도 수십장의 설계도면을 그리였고 여러 생산공정들의 흐름선완성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바치였다.

람구로 낮과 밤을 이어가고 창조로 온 공장

이 들끓는 속에서 신약직장의 타정기와 당의기, 원료제분설비들, 고려약직장의 진공추출기, 정유기, 진공건조기, 진공농축기 등 엑스 생산공정과 물약포장공정의 기대들을 비롯하여 190여대에 달하는 설비들이 새로 제작되거나 개조되었다.

공장에서는 품질검사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종합분석실도 새로 꾸리어 의약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나라에 풍부한 고려약재들을 리용하는 새로운 고려의약품들을 개발하여 생산에 받아들이고있다.

생산공정들이 GMP기준에 부합되게 변모되고 생산능력이 2.5배로 높아진 평양제약공장은 오늘 대중의약품생산기지로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사진, 글 김현희



생산된 의약품들의 일부



# 사회주의물명이 응축된 려명거리







## 에너지절약형, 녹색형거리

사회주의조선의 국력을 과시하며 웅장하게 솟은 려명거리는 세계적인 건축발전추세에 맞게 선진적인 에너지절약기술, 녹색건축기술이 광범히 도입된 거리이다.

모든 살림집호동들에 총난방에너지의 30%이상을 절약할수 있게 하는 광실희피동식태양열난방체계와 함께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계가 갖추어져있고 태양빛전지판들이 설치되어있어 주민들의 전력소비량을 훨씬 줄이게 하고있다.

여름철의 햇빛을 채양형식의 빔가림구조로 차단하여 실내온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고 냉방부하를 줄이는 에너지절약기술과 지열-환기폐열의 리용기술, 비물회수리용기술들을 받아들인 여러 학교들과



살림집벽체들과 가로등, 공공건물옥상들에 자연에너지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태양빛전지판들과 태양열물가열기들이 설치되어있다.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지붕 및 벽면녹화기술 등 녹색건축기술이 도입되고 수림화, 공원화가 특색있게 실현되었다.



유치원, 탁아소들은 새 거리의 앞날의 주인공들에게 보다 훌륭한 교육 환경, 보육환경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연 90여만㎡의 거리면적에서 56종에 3만여그루에 달하는 키나무, 꽃 관목들과 4 000여그루의 장미를 비롯한 20여만포기에 달하는 화초 그리고 잔디밭으로 구성된 녹지면적은 20여만㎡에 달한다.

그와 함께 살림집건축면적의 75%, 공공건물건축면적의 70%에 지붕 및 벽면녹화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살림집들의 베란다에 설치된 화대의 총길이는 무려 80여리에 달한다.

하여 첨단과학기술과 생태환경보호기술이 훌륭히 결합된 현대적인 거리에서 사는 주민들의 궁지와 자량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록색건축기술교류사

## 최상의 편리성이 보장된 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구상이 구현된 려명거리에는 각종 봉사시설들이 많이 자리잡고있다.

독특한 건축형식의 록색건축기술교류사와 려명거리종합상점, 룡흥삼방상점과 같이 덩지가 큰 봉사시설들을 비롯하여 이 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상점과 식당, 영화관,서관, 체신소 등 봉사망들의 수는 130여개로서 다른 거리들에 비해 배치밀도가 매우 높다.

동천호분식당, 려명국수집, 금산포특산물상점과 교원양복점, 책방, 약국을 비롯한 각종 급양 및 상업봉사, 편의문화후생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꾸려져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고있다.

건축형식들도 다양한 건물들의 기단층들마다에 구색이 맞게 배치된 봉사망들 특히 초고층살림집들을 서로 이어주는 형식의 기단층들에 자리잡은 봉사망들은 거리의 풍치를 더욱 이채롭게 하고있다.

내부 역시 봉사시설들의 사명에 맞게 실용성과 조형화, 예술화가 잘 보장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고있다.

살림집구획들마다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정서생활장소들도 충분히 갖추어져있는데 아동공원과 배구장, 바드민턴장, 로라스케트장의 면적만도 총 5만 7 000여㎡에 달한다.

한낮에 이어 깊은 밤에도 웅장화려한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고있는 려명거리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끊없이 울리고있다.

사진 리명국, 안철룡, 홍래웅 글 정기상



유치원과 락아소도 꾸려져있다.



려명서관



려명거리영화관



대성구역 려명소학교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줄수 있게 꾸려진 각종 상업 및 편의봉사, 문화후생시설들의 일부



70층살림집과 55층살림집사이의 기단층을 하나로 연결시켜 꾸려진 종합상업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교수 박사 김범주

우리 집안에서는 이번에 우리 부부와 딸네 가족이 꼭 같이 한날한시에 려명거리의 훌륭한 새 집들을 받아안았다.

한생 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의 교단에서 있으면서 당과 국가로부터 받아안은 혜택만도 헤아릴수 없는데 이렇듯 크나큰 은정에 또다시 접하고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우리 교육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사회주의문명을 남먼저 누리는 최대의 특전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더욱 깊이 새기고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실현해가는 길에서 교육자집안으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계속 빛내이겠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김광혁

김일성종합대학 교원들인 우리 부부는 가정을 이룬지 2년도 안되어 이렇듯 모든 생활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추어진 살림집을 받아안은 최상의 복을 받아안았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교육자도 많지만 우리처럼 품 한자루 들이지 않고도 이런 무상의 행복을 향유하는 교육자들은 세상에 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최첨단과학기술로 떠받들 인재들을 키우는데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는것과 함께 높은 실력을 지닌 교육자로 준비해가기 위하여 더욱더 분발하겠다.

## 한없는 고마움의 목소리



정말 꿈만 같다.

1년전까지만 하여도 여기에 있던 단칸짜리 집에서 살던 우리가 이렇게 궁궐같이 꾸려진 살림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아안게 되니 마음속 진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눈앞이 자꾸 흐려져서 선뜻 걸음을 짚을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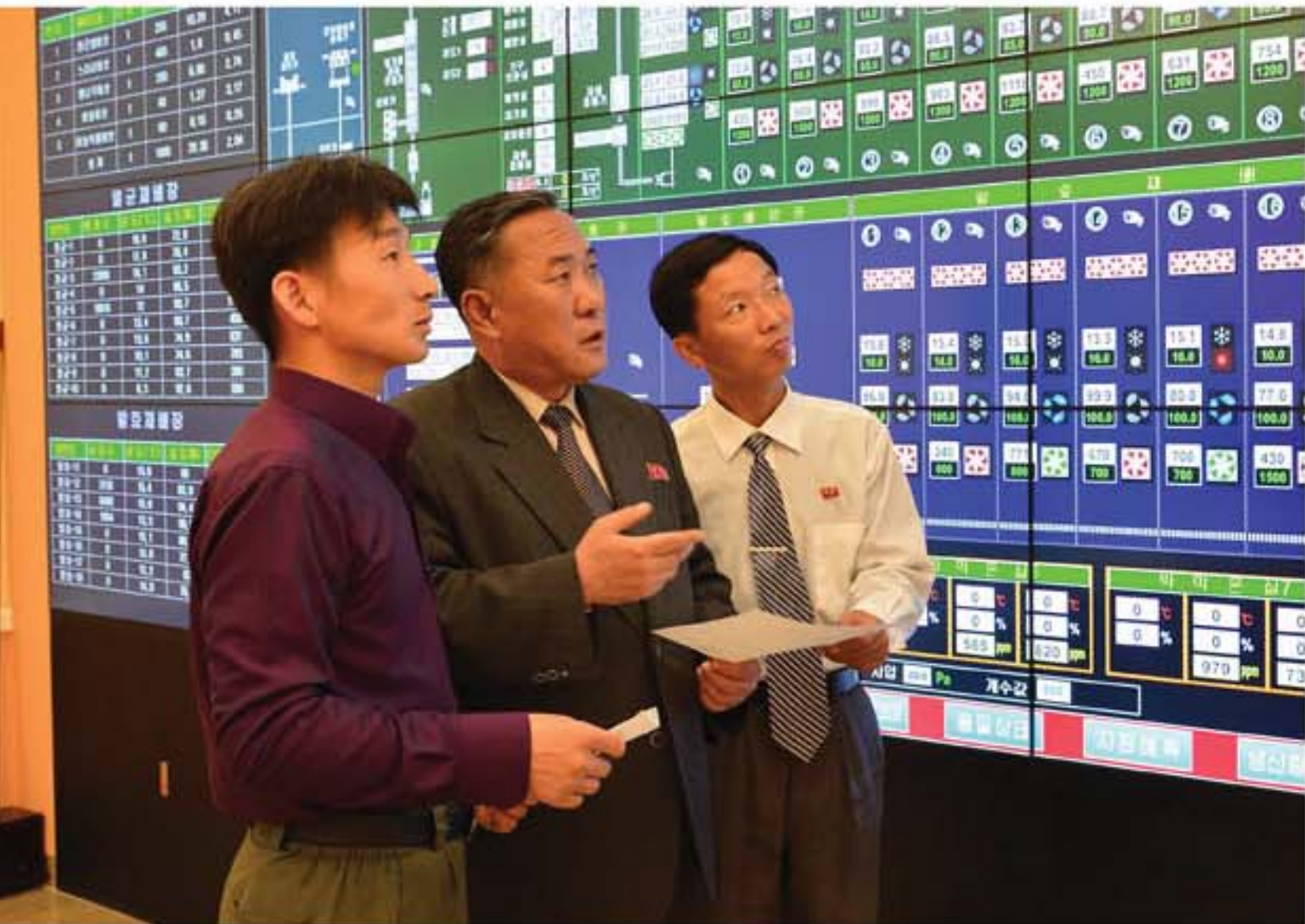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리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일생토록 애써도 이런 집을 도저히 마련할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온 나라 가정을 보살펴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겠다.

서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로동자 김광철







순천 화학련합기업소  
아크릴계질감생산공정을  
완성하던 나날에

성공시킨데 이어 지난해 7월까지 최대부하에서도 이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할수 있다는것을 확정지음으로써 화학공업의 첨단을 돌파하였으며 조선에서의 탄소하나화학공업의 새 장을 열었다.

그후에도 이들은 대동강돼지공장과 평양 버섯공장의 통합생산체제도 훌륭히 완성하여 과학기술경쟁의 전렬에서 나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었다.

흘러온 나날속에 스스로 자기 힘을 키우고 그것을 최대한 발양시키는것만이 모든 성공의 비결임을 더욱 확신한 정일철은 오늘도 최상의 것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것이 될수 없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경제의 현대화를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나라의 과학발전에 이룩한 공로로 하여 과학기술부분의 최고상인 2. 16과학기술상을 2차에 걸쳐 수여받은 정일철은 지난해에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2016년 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었다.

사진 최원철 글 최광호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체적토의를 하고있는 정일철과 연구집단원들

## 첨단돌파전의 기수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자동화체계 연구실은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명성을 떨치고있는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주체88(1999)년 9월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여러 부문의 40여개 주요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를 실현한 이 관록있는 연구집단을 박사, 부교수 정일철이 이끌고있다.

대학생시절부터 으뜸가는 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던 정일철은 주체75(1986)년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의 교원으로 배치된 처음부터 교육사업에서 뿐아니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달성한것으로 하여 학부에 새로 설립되는 이 연구집단을 책임지게 되었다.

처음으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애기젓가루생산공정조립과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련이어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공정 현대화를 단번성공시킨 그의 연구집단은 자신

들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새 세기 공업 현대화의 한페지를 자기 집단이 쓰겠다는 높은 목표를 내걸고 더욱 분발하기 시작하였다.

정일철은 자동화실현에서 세계적추세로 되고 있는 프로그램논리조절기대신 현실에 맞는 자동조종체계를 개발할 통이 큰 계획을 세우고 완강하게 노력하여 성공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원가로 공업부문의 현대화, 자동화를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전문가들의 놀라움과 찬탄을 모은 이 체계를 그는 함흥목제품공장과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강제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단위들의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는데 도입함으로써 투자 대 소득의 비율을 수배, 지어 수십 배로 높였다.

2년전 정일철을 중심으로 한 연구집단은 세계적으로 발전된 3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자동조종체계를 단 70여일동안에 개발하고 시운전을 단번





# 오늘도 그날에 사는 여성종군기자

중편소설 《박우물》은 여러해전에 출판되었지만 오늘도 조선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다.

청소한 공화국에 침략의 검은 구름을 몰아온 미제를 물리친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의 준엄한 시기 사랑하는 조국땅을 목숨으로 사수한 영웅전사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준 이 소설의 필자는 전쟁로병인 리계심이다.

소설은 여성종군기자였던 그가 가렬한 전화의 포화속을 헤쳐온 자신의 산체험을 작품에 담은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는 것이다.

1950년 6월 미제의 무력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자 계심도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불과 불이 맞부딪치는 전장에 나설 때마다 그에게는 나라의 해방(1945. 8. 15.)과 함께 지나온 꿈같은 5년이 그림처럼 떠올랐다.

지주집 부럽지 않던 덩실한 기와집, 마당이 모자라게 울려쉴았던 쌀가마니들, 군의 첫 여성대의원으로 된 어머니, 사리원녀자중학교 졸업에 이어 문학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던 **김일성**종합대학의 정다운 교정 ...



평양시 모란봉구역 월향동에 살고있는 전쟁로병 리계심

이 모든것은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던 주체20(1931)년 4월 8일 황해도 봉산군의 빈농가정에서 태어나 《무녀》라는 이름아닌 이름으로 불리우며 찬바람에 부대끼는 울밀의 봉선화처럼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것이다.

다시는 《무녀》라고 불리우고싶지 않은 그는 고마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야전병원 간호원으로서 불비쏟아지는 고지들을 넘나들며 부상병들을 치료하였고 드바쁜 속에서도 불덩어리같은 시들을 써서 전사들을 고무해주었다. 이런 연고로 그는 군단신문 《강철부대》의 주필이 되었다.

그는 가렬한 결전장들을 오가며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전투원이 되어 용감하게 싸우면서도 신문기사들을 쓰고 편집도 하였다.

이렇게 전호속에서 발간된 신문들은 병사들의 조국수호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불씨가 되었다.

주체41(1952)년 12월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로 소환된 계심의 종군길은 전승의 축포가 오르는 그날까지 포연탄우의 불비속으로 이어졌다.

그는 전후 조선문단에서 시인으로 전화의 나날처럼 한생을 살아왔다. 그는 《영원히 녀전사의 마음으로》라는 자기 시집의 제목처럼 여운이 깊은 전쟁물주제의 중편소설들과 추억에 남는 시와 수필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조국결사수호의 정신을 신념과 의지로 다져주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하여 전우들과 독자들은 전쟁이 끝난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그를



리계심이 창작한 작품들을 게재한 출판물들



리계심을 비롯한 전쟁로병들은 포화속을 헤치며 싸우던 전화의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주필》, 《여성종군기자》라고 부르고있다.

오늘도 리계심은 손에 펜을 쥐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수호정신

을 심어주는 종군길을 걷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선경



전우들과 함께



# 관록있는 3부자요술배우



아버지 김택성 (국립교예단 평양교예학원 요술강좌장)



만아들 김철 (국립교예단 요술과장 겸 배우)



둘째아들 김광철 (국립교예단 배우 겸 연출가)



새로운 요술작품을 놓고

조선의 국립교예단에는 3부자요술배우가 있다.  
그들은 지난 수십여년간 나라의 요술발전에 이바지하여온 명배우들이다.  
가장인 김택성은 국내외의 요술계에 깊은 여운을 남긴 관록있는 배우이다.  
50여년전 어느한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던 그는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고 꽃피워주는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서 요술배우로 성장하였다.  
국립교예단의 요술배우가 된 그는 사색과 탐구, 열정을 바쳐 참신하고 독특하면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폭넓게 반영한 요술작품들을 창작하여 무대에 펼쳐놓음으로써 관중들을 매혹시켰다.  
《비단폭포 쏟아진다》, 《사과풍년》, 《꽃바구니》 등 그가 창작출연한 많은 요술작품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그는 여러차례 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1등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제16차 국제현대요술축전과 제20차 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세계요술왕》, 《세계2중요술왕》칭호를 각각 수여받았다.  
요술배우생활의 나날에 그는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배우로 되었다.  
환상요술, 기능요술에서 신비한 연기로 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의 뒤를 이어 두 아들도 요술배우가 되었다.  
아버지의 각별한 지도와 함께 창작적열정을 바쳐온 그들은 1980년대부터 요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환상요술 《무사들》, 《거울에 비친 처녀》는 만아들 김철의 대표작이다. 요술창작에서 기발한 착상과 새로운 발기는 그의 특기이며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비결이기도 하다.  
그에게 뒤질세라 둘째아들 김광철도 정열을 발휘하여 유망한 요술



주체70(1981)년 체스꼬슬로벤스꼬 까를로비 바리에서 진행된 제16차 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그랜드상과 《세계요술왕》칭호를 수여받은 김택성(아버지)



주체85(1996)년 모나코에서 진행된 동메카를로국제요술축전에서 최고 기술상을 수여받은 김철(만아들), 김광철(둘째아들)

배우로 성장하였다.

두 형제가 함께 출연하는 환상요술 《두 모험가》는 기발한 착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을 신비로운 환상세계에 끌려들게 한다.

요술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그들 형제는 국제무대에 자기들의 첫선을 보인데 이어 몽메카를로국제요술축전과 까를로비 바리국제요술축전에서 그랜드상과 기술상들을 수여받았다. 나라에서는 김철과 김광철도 김일성상계관인, 인민배우로 내세워주었다.

3부자요술가들이 지금까지 창작하여 무대에 올린 환상요술, 기능요술, 일반요술, 교감요술 등의 작품들은 100여편이나 된다.

그들은 수천회에 달하는 요술공연무대를 펼쳐 인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랑만을 안겨주었을뿐만아니라 국제무대들에서 날로 발전하는 조선요술의 면모를 파시하였다.

올해 83살인 김택성은 국립교예단 평양교예학원 요술강좌장으로 재능있는 요술배우들을 키워가고있으며 만아들 김철은 국립교예단 요술과장 겸 배우로, 둘째아들 김광철은 배우 겸 연출가로서 나라의 요술발전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박병훈





# 대동강의 새 품치



평양의 품치수려한 대동강의 맑은 물결을 헤가르며 오가는 태양빛전지유람선들이 강반의 이채로움을 더해 주고 수도시민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이 유람선들은 연유를 전혀 쓰지 않고 태양빛전지판을 리용하여 동력을 보장하는것으로 하여 대동강과 도시의 생태환경보호에도 좋다.

유람선들은 김일성광장-주체사상탑 배길을 오가며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할뿐만 아니라 옥류교-대동강다리, 김일성광장-5월1일경기장, 김일성광장-과학기술전당 배길을 따라 유람봉시도 진행하고있다.

대동강의 관상적효과와 미학적품치를 더욱 돋구어주는 유람선들은 미래의 녹색환경, 녹색도시를 그려보게 한다.

사진 김윤혁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대원1동 16인민반에 살고있는 리은경과 그의 딸 한송경

예로부터 자식은 가정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웃음이고 기쁨이던 송경이가 한살이 지나면서 부터 점차 숨을 쉬기 힘들어하면서 얼굴부위가 검کم해지는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우리 딸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할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모태기다가 잠들 때면 꿈에서는 항상 송경이가 생기발랄하게 노는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호담당의사선생님이 찾아와 아이들의 병원으로 훌륭



히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에서 송경이를 치료하자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딸애의 손목을 잡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천성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걱정하는 나를 보고 심장혈관외과 부과장 김철진선생은 송경이의 병은 꼭 고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병원의 중앙홀에 있는 그림을 보았을겁니다. 세상에 부럼없다고 마음껏 소리치며 함박꽃같은 웃음을 짓고 달려가는 그 아이들속에 송경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날부터 심장혈관외과에서는 송경이를 위한 긴장한 치료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차에 걸쳐 진행된 의사협의회에 이어 송경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경이가 수술장에 들어간 다음의 한초한초가 왜 그다지 길게 느껴



지던지 ... 딸애에 대한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것을 알았을 때의 심정을 저는 지금도 형언할수 없습니다. 후에야 나는 심장혈관외과 의사선생들이 심방중격결손증, 심실중격결손증과 같은 단순한 선천성심장병으로부터 활로4중후, 대혈관전위증을 비롯한 복합선천성심장병의 수술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술법을 터득한 심장혈관외과의 1번수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후에도 송경이에 대한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송경이의 박동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침상결에서 몇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송경이를 위해 모든 지성을 바쳐가는 그들을 보며 그리고 건강

과 웃음을 되찾고 병원의 유치원교양실에서 새별눈을 반짝이며 우리 딸이며 썸세기를 배우는 딸애를 보면서 나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며 무상치료의 혜택을 베푸는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다시한번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솟아난 옥류아동병원에서 보건일군들의 뜨거운 정성과 높은 의술에 의해 병을 고친 우리 송경이는 오늘 동대원구역 동신유치원에서 무럭무럭 자라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송경이를 고마운 조국을 받드는 역센 기둥감으로 키우겠습니다.

리은경  
사진 안철원





# 여자축구국제심판원

지난해 브라질에서 진행된 제31차 올림픽 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장들에서는 세계축구의 관심을 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 녀성심판원이 있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심판원들은  
경기대회때마다 로숙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 국제축구연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심판원들과 같은 훌륭한 심판원을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를 느낀다.

- 앞으로 조선의 심판원들이 심판활동의 교본이 될수 있게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제축구련맹 심판국 국장을 비롯한 축구계 가정의 주부로 딸애를 가진 어머니가 된 그가 축구장을 떠난지 5년이 된 주체90(2001)년 나라에서는 조선체육대학에서 축구심판원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의 인사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은 그들중에는  
홍금녀, 여자축구국체심판원도 있었다.  
축구격전장대에서 높은 심판실력을 발휘한  
다시 축구장에 나서게 된 그는 기쁨과 함께  
조국의 고마움에 높은 실력으로 보답할 마음을  
안고 열심히 배웠다.

그는 40대의 여성이다.

그 나이에 선수들 못지 않게 축구장을 달리었을뿐아니라 높은 주의집중력 그리고 신속 정확한 판단과 결심체력으로 경기심판을 공정하게 처리해나가는 그의 모습은 체육계에서는 물론 못사람들속에서까지 호기심을 자아내었다.

그는 20대의 처녀시절에 조선의 첫 여자축구 국가종합팀선수로 활약하였다. 10번으로서 팀의 우승에 이바지하여온 그의 축구선수생활은 처녀시절이 끝남과 동시에 막을 내리었다.

가정의 주부로 딸애를 가진 어머니가 된 그가 축구장을 떠난지 5년이 된 주체90(2001)년 나라에서는 조선체육대학에서 축구심판원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다시 축구장에 나서게 된 그는 기쁨과 함께 조국의 고마움에 높은 실력으로 보답할 마음을 안고 열심히 배웠다.

심판원교육과정을 마친데 이어 여자축구 국제심판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육체측검과 경기규칙에 대한 리론 및 록화물시험을 비롯한 어려운 시험들에서 합격되어 그는 주제92 (2003)년부터 국제여자축구경기심판원으로 활약하였다.

2015년 세계녀자축구선수권대회와 2016년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많은 여자축구경기들에서 그는 실력있는 심판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두차례에 걸쳐 국제축구련맹에서 우수한 심판원들에게 수여하는 메달을 받았다.

그는 오늘 국제녀자축구경기장의 심판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내교향녀자축구선수단 감독으로서 나라의 축구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사진 최명진 글 김래현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녀지축구국제심판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홍금녀





## 장애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장애자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보호사업이 날을 따라 높아 가고있는 조선에서는 장애어린이들의 회복에도 힘을 넣고있다.

주체101(2012)년 3월에 설립된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에서는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조기적발과 회복, 조기교육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토대에서 진행하고있다. 회복원에서는 각급 인민정권 기관들 그리고 보건기관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장애어린이들을 조기에 찾아냄으로써 그들의 회복률을 높이고있다.

뇌성마비, 자폐증, 롱아 등 장애류형에 따르는 작업료법, 감각료법, 언어료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회복방법들을 받아들이고있는 이곳 의사들은 그에 맞는 회복기재들과 설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고있다.

회복원에서는 어린이놀이장도 동심에 맞게 꾸리고 지능회복에 좋은 놀이기구들을 갖추어놓았을뿐만 아니라 학령전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방법도 부단히 개선하고있다.

미래를 위해 바쳐가는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종업원들의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하여 장애어린이들의 회복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 되고있다.

사진 리학명 글 김정



여러가지 장애류형에 따르는 회복기재들과 설비들을 갖추어놓고 장애어린이들의 기능회복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 성균관은행나무

개성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균관 마당에는 두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다.

성균관은행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들은 조선의 은행나무 가운데서 오래 자란 나무로서 유적 건물(성균관)과 함께 역사적으로 보존되어오는 귀중한 자연재부이다.

동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높이 30m, 밑둘레 6m, 가슴높이 둘레 5.25m이며 약 2.8m의 높이에서 두개의 원줄기로 갈라졌다.

가지들과 줄기에서 수많은 잔 가지들이 뻗어 직경 약 20m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서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높이 31m, 밑둘레 6.45m, 가슴높이 둘레 5.25m, 밑둥직경 2.6m, 가슴높이직경 1.7m이다.

약 4m의 높이에서 2개의 원줄기가 갈라졌으며 굵은 가지들과 잔가지들이 뻗어 직경 약 27m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주체 69(1980)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성균관은행나무들은 학술연구와 나무모양이 아름다워 자연풍치를 돋구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적극 보호관리되고있다.

사진 박창복 글 박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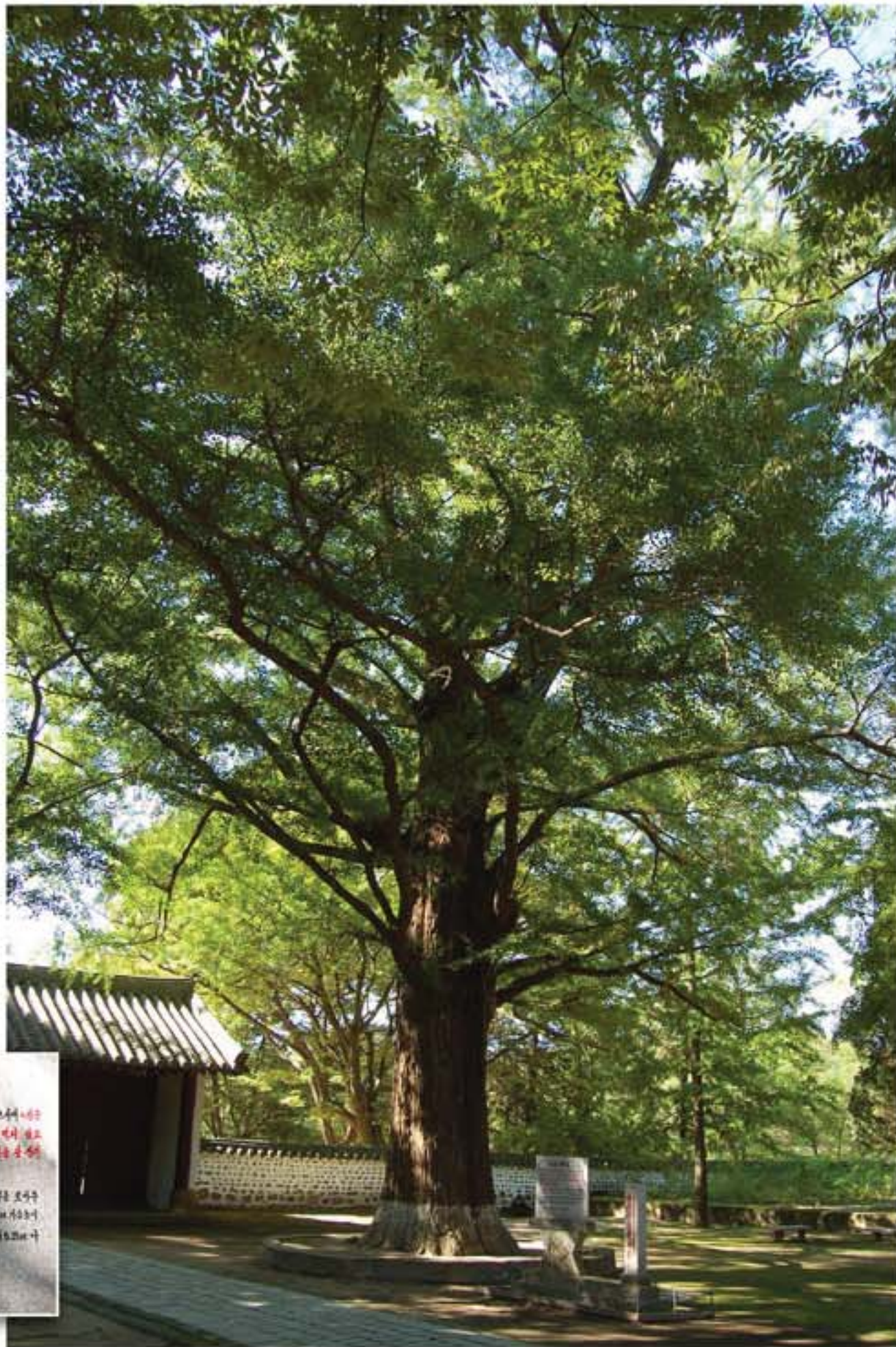


사진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진행



제17차 5. 21건축축전이 있었다.



제19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진행



2017년 불철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 진행



제20차 평양불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



